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소형 핵폭탄을 투하해 25만 명이 사망했다. 이는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이다.

많은 사망자가 불에 타 즉사했다. 다른 이들은 심각한 화상, 폭발로 인한 부상, 급성 방사선 증후군으로 인해 수 시간, 수일, 수 주에 걸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 더 많은 사람이 수년에 걸쳐 방사선 관련 암과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계 각국은 핵무기를 시급히 폐기해야 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상은 끔찍했다. 학교 운동장에는 이미 숨졌거나 죽어가는 아이들이 흩어져 있었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시체를 품에 안고 다녔다. 내장이 쏟아져 나오고 팔다리에 벗겨진 피부가 너털거리던 사람들도 있었다.

대부분의 희생자는 고통을 덜어 줄 최소한의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멀쩡히 남아 있는 병원이 거의 없었고, 의료 물자는 파괴되었으며, 대부분의 의사와 간호사는 죽거나 다쳤기 때문이다. 폭탄 투하 이후 두 도시에 진입한 구조 인원들도 잔여 방사선의 위협을 무릅써야 했다.

폭심지

두 도시에서 폭발의 진원인 폭심지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반경 1.2킬로미터 이내에서 폭탄의 피해에 그대로 노출된 사람들의 거의 모두 즉사하거나 수주 내에 사망했다.

폭심지의 지면 온도는 섭씨 3,000도에서 4,000도에 이르렀고, 3.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사람들까지 화상을 입었다. 강력한 충격파는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목조 건축물 대부분을 파괴했다.

1킬로미터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급성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할 만큼의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되었다. 이보다 훨씬 멀리 있던 사람들 또한 방사선의 지연된 영향으로 사망했다.

희생자의 절대다수인 90%는 민간인이었으며, 이 중에는 약 3만 8,000명의 아동도 포함되어 있었다. 히로시마 폭격 당시 약 8,400명의 중학생이 민방위의 일환으로 방화선을 만들기 위해 야외에 나와 있었다. 이들 중 6,300명이 사망했다.

여파

폭격 직후의 아수라장 속에서도 부모들은 자녀를, 아이들은 부모를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다. 일부는 새까맣게 탄 유해나 유품만을 발견했고, 나머지는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 심각한 부상을 입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기에 가족들의 재회 과정은 더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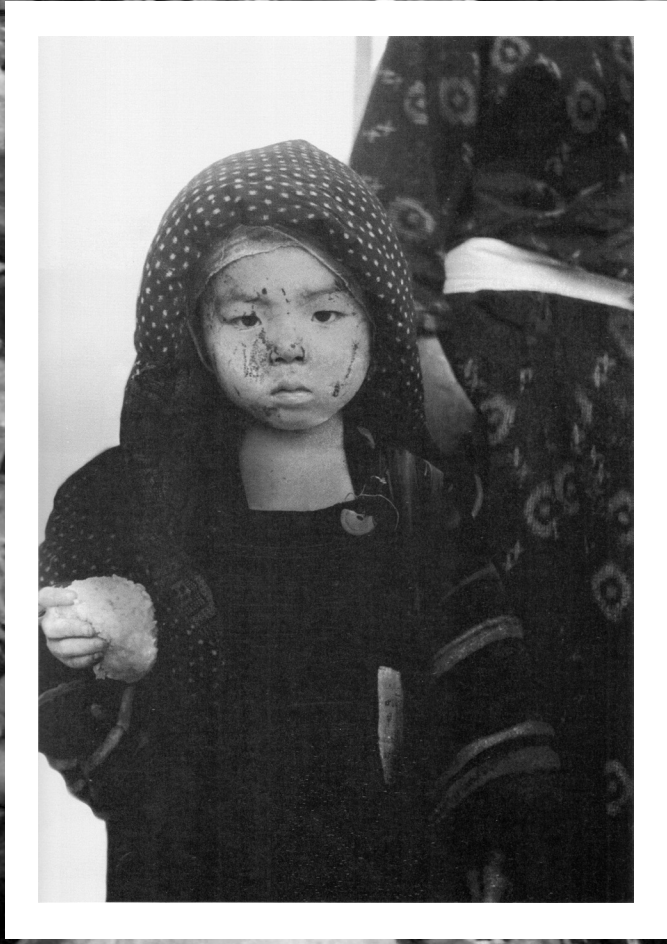
일부 희생자들은 겉으로는 드러나는 상처가 없었지만 갑자기 앓다가 사망했다. 구조대원들은 방사능을 이용한 신무기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죽음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다.

많은 임산부들이 유산을 겪거나 영아기에 사망하는 아이를 출산했다. 이는 폭탄의 방사선이 자궁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소두증을 비롯한 선천적 기형 또한 임신 도중 피폭된 아이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났다.



공격 한 달 뒤의 나가사키. 사진 제공: 미국 정부

나가사키에서 한 소년이 참사 이후 배급 식량을 받고 있다.
사진 제공: 야마하타 요스케



신이치의 세발자전거

히로시마 폭격 당시, 세 살이던 테츠타니 신이치는 야외에서 평소에 즐겨 타던 세발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그는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몇 시간 뒤 숨졌다. 그의 두 누이인 미치코와 요코도 함께 목숨을 잃었다.

훗날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일이 아이들에게 절대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힘써주십시오.”

불에 탄 신이치의 세발자전거는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에 전시되어 있다. 또 자전거를 본떠 만든 조각상이 제네바의 국제적십자·적신월 박물관에 있다.

신이치의 세발자전거는 핵공격 속에서 아이들이 겪은 고통을 상징하는 가슴 아픈 상징물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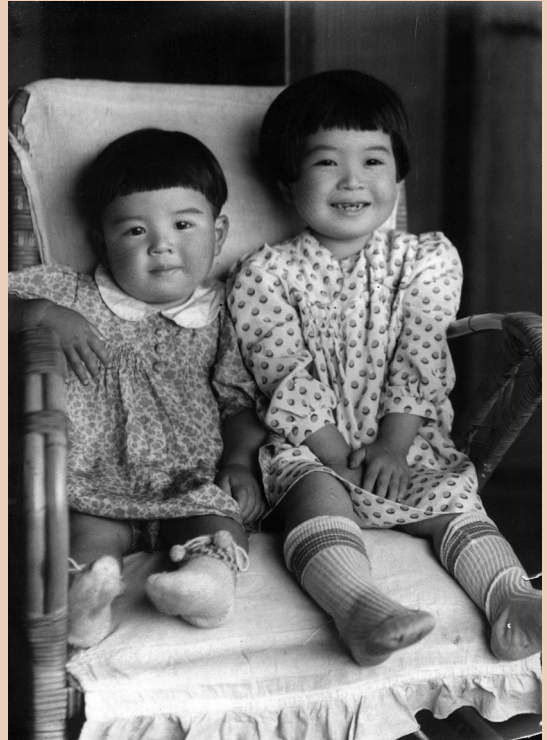
사진 제공: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테츠타니 노부오 기증

히로시마의 자매들

두 살의 와타오카 기미노와 다섯 살 언니 히로노는 히로시마 폭격 당시 부모와 함께 집에 있었다. 네 식구 모두 목숨을 잃었다.

또 다른 자매인 카요코 역시 폭심지 인근에서 사망했다. 오직 맏언니 치즈코만이 생존했다.

기미노(왼쪽)와 히로노(오른쪽)의 이 사진은 왼쪽 투하 불과 하루 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제공: 이와타 미호



핵폭탄으로 인한 피폭

일곱 살의 이케모토 도루와 아홉 살인 누이 아이코는 히로시마 폭격 당시 폭심지에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장소의 실내에 있었다.

폭격 후 4~5일이 지나자,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발열과 잇몸 출혈 증상도 나타났다. 이는 급성 방사선 피폭의 증상이었다.

두 사람은 급성 증상에서 회복했지만, 결국 방사선 노출의 지연된 영향으로 도루는 11세, 아이코는 29세에 사망했다.

남매인 도루(왼쪽)와 아이코(오른쪽)가 1945년 10월 히로시마 적십자병원에 있다. 사진 제공: 기쿠치 슌키



생존자들

운 좋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일본어로 히바쿠샤, 또는 “피폭자”로 불리게 되었다.

많은 생존자가 부상으로 인한 통증과 불편, 그리고 트라우마로 평생 고통받았다. 일부는 몸과 얼굴에 두꺼운 흉터 조직이 남았고, 또 어떤 이들은 유리 파편이 피부에 깊게 박힌 채 수십 년을 살아야 했다.

여성들은 핵폭탄으로 인한 유전적 손상이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 큰 고통과 낙인을 감내해야 했다.

폭격 몇 년 뒤, 방사선의 지연된 영향으로 생존자 사이에서 암을 포함한 각종 질환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로 발병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특히 백혈병 발병률이 높았다.

핵무기의 위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많은 생존자가 1945년 일어난 일을 공개적으로 증언해 왔다. 폭격 당시 아이였던 피해자 중 일부가 오늘날에도 생존해 있으며, 공격에 대한 증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들은 수십 년째 일관된 메시지를 외치고 있다. 핵무기와 인류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

2024년에는 생존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연합인 니혼 히단쿄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노력과 증언을 통해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생존자들의 용기와 헌신은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 핵무기 폐기 운동에 동참하게 했다.

생존자이자 활동가

나가사키 폭격 생존자인 다니구치 스미테루는 당시 열여섯 살 소년이었다. 그는 “폭발의 섬광과 함께, 자전거에서 날아가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습니다”라고 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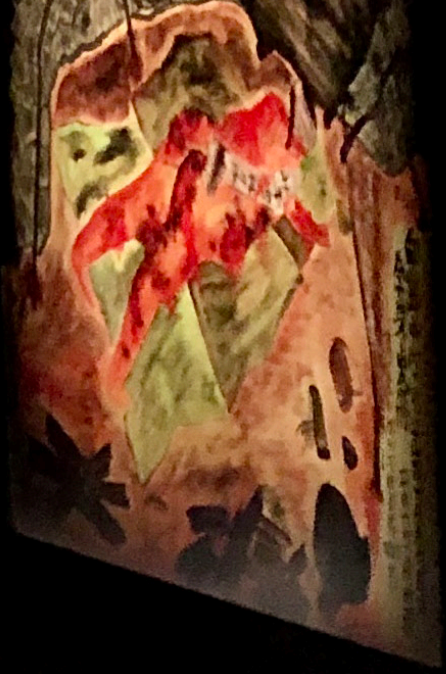
고개를 들었을 때, 방금 전까지 자기 주변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모두 죽은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는 폭심지에서 거의 2킬로미터 가까이 떨어져 있었음에도 등, 왼팔, 왼쪽 다리에 극심한 화상을 입었다. 또 상처가 감염되어 4년 가까이 입원해 있었으며, 그중 21개월은 엎드려 누운 채 지냈다.

상처의 고통은 평생 아물지 못했다. 그 후 그는 일생을 핵무기 폐기 운동에 바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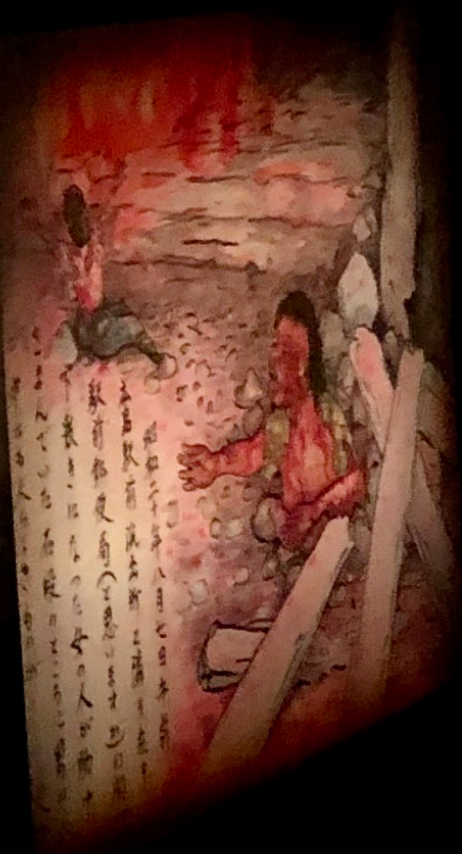


다니구치 스미테루가 1946년에 촬영된 자신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등에는 나가사키 원폭의 흉터가 남아 있다. 사진 제공: 나카오 유리코



“한참 뒤에 방공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운동장 곳곳에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땅은 온통 시신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미동도 없이 죽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버둥거리거나 팔을 들어 올리는 사람도 몇 있었습니다.”

- 쓰지모토 후지오, 당세 5세, 나가사키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의 한 전시물.